

# 행정체제 개편에 발목 잡힌 내년 선거구 논의

### 획정위, 법상 광역의원에 한해 정수·관할구역 조정 가능 행정체제개편 따른 기초의원 정수까지 논의시 위법 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획정위는 광역의원 정수 등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는 등 법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목표대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내년부터 실시되면 도민들은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도 뽑아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획정위가 지금 시점에서 기초의원 정수까지 논의하면 물론 논란이 휩싸일 수 있어 제주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획정위는 외부 인사가 참여해 도의원 정수와 각 지역선거구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말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

는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복잡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사라지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같은 광역의원 의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시군의회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사라질 교육의원 정수를 지역구 정수로 흡수할 수 있을지, 흡수한다면 얼마나 지역구에 배분할지, 행정체제개편으로 기초의회가 설치된다면 광역의원과의 기초의원별 정수는 각각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주요 관심사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법 개

정도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은 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45명으로 규정하고, 각 배분 몫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32명, 교육의원은 5명, 비례대표는 8명이다.

통상 지방선거는 6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획정위는 선거 직전년도 1~2월쯤에 구성됐다.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은 선거구 획정안을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정 시한을 두고 있어 마지노선은 올해 12월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획정위가 구성되지 않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획정위를 서둘러 구성해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됐을 때, 성사됐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6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요구에 대해 “획정위의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매듭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논의를 하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가 말한 ‘법적인 기준’은 제주특별법 제36~38조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조문상 획정위 권한은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 조정 등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 있다. 획정위의 공식 명칭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문상 획정위가 기초의원 정수까지 논의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현행 법에는 도의원 정수 등만 논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초의원 정수 등까지 논의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

### 도, 올해 마라도 등 부속섬 배송 서비스 확대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2025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대상지’에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5차례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돼 그동안 40여 원을 지원받았다.

제주도는 올해 선정에 따라 가파도와 마라도, 비양도 등 부속섬을 대상으로 선박 운항이 없는 물류 취약시간대에 생활필수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특산물을 역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운영 일수와 시간대가 각각 수요일-토요일과 오후 4-10시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수요일-금요일에 오후 4시~8시 사이에 서비스가 이뤄졌다.

또 비양도와 마라도의 경우 최대 배송 무게가 당초 3kg에서 10kg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배송함도 대형화된다. 또 공공배달앱인 ‘막개비’와 연계해 가맹점과 배송물품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1283km)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집행률 높여야”

###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2023년 제주 집행률 하위권

제주도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집행률이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3년 집행률 기준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6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6년 5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일이 알려지면서다. 현재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9~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 보조 사업인데 2023년 전국 평균 집행률이 84.6%로 총 19억 18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89.9%)이었고 경남(89.5%), 광주(88.9%) 순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76.9%)이었고 제주(79.0%), 경기(82.4%)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제주는 교부액 2억3800만원 중에서 1억8800만원을 집행했고 5000만원을 불용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모두 취약 계층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절차 간소화,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도 ‘재해복구추진단’ 개편 복구 사업 자문단도 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의 대형화와 발생 빈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복구추진단’을 일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제주도 행정부지사실 단장으로 도에는 재해복구공사 지도반(16개 분야 47명)을 설치해 설계 검토와 기술 지원을 전담하도록 했다. 행정시에는 주택복구지원반, 설계지원반, 예산지원반, 계약담당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지원반, 편입용지 보상추진반 등 6개 실무반을 구성해 재해 복구 공사 조기 발주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복구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9명으로 자문단도 새롭게 꾸렸다. 자문단은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됐고 이 중 56명은 행정안전부 중앙사전설계검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포탄 떨어진 민가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포탄이 떨어져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 도, 미사용 지하수 시설 50공 원상복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시설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해 수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사용 지하수 시설 27공을 원상 복구했고, 올해는 예산을

늘여 50공을 복구할 예정이다. 현장 여건과 작업 난이도 등에 따라 일부 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복구 대상시설 인근에 건축물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 허가자가 이를 정리한 후 공사가 진행된다. 이상민기자

서귀포시, 공무원 31명 공개 채용  
서귀포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무원 24개 분야에 3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보건(12명) ▷야

동·청소년 교육분야(5명) ▷문화공원 시설운영(2명) ▷청소년차량 운전원(3명) ▷도로 유지보수(2명) ▷상하수도 시설관리(2명) 등이다. 원서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4월 4일(오후 6시)까지다. 문의 760-2067. 문미숙기자

## 제주별미영양식 골라담은 한끼 식사 **팡! 팡! 팡!**

**팡** 초특가 할인판매

**팡** 안방까지 무료 택배

**팡** 상품구성, 단체주문 자유롭게 별도 주문

제주웰링 K-밥상  
**건강식**  
**1호 세트**  
정상가 78,000  
**할인가 54,000**

갈치조림 400g 2팩 + 고등어조림 500g 2팩 + 성게전복미역국 400g 2팩

제주웰링 K-밥상  
**주집한**  
**2호 세트**  
정상가 60,200  
**할인가 45,000**

갈치조림 400g 1팩 + 고등어조림 500g 1팩 + 성게전복미역국 400g 1팩 + 제주물국 500g 2팩 + 고사리육개장 500g 2팩

제주웰링 K-밥상  
**골고루**  
**3호 세트**  
정상가 49,600  
**할인가 38,000**

갈치조림 400g 1팩 + 고등어조림 500g 1팩 + 성게전복미역국 400g 1팩 + 제주물국 500g 1팩 + 고사리육개장 500g 1팩

- 제주전통 요리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HACCP인증시설에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 간편식(HMR)으로 조리없이 4~5분 그릇에 데워 먹는 가정 상비식품입니다.
- 냉동제품으로 택배 시 아이스박스에 입고하여 무료로 배달됩니다.
- 4계절 내내 우리 가족 건강식 + 1인 혼밥 식사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문의처 :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725-1100**

무료 택배